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초등방과후학교 미술수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혜정

2012년 8월

#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초등방과후학교 미술수업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강 동 언

김 혜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8 월

김혜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년 8 월

A Study on Art Therapy Techniques  
introduced as an Elementary After-School  
Art Program

Hye-j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Dong-eon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Dong-eon Kang, Prof. of Art Education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초등방과후학교 미술수업에 관한 연구

김 혜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동 언

미술교육은 아동에게 필요한 창의적 발달 뿐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교육부에서도 감성교육의 일환으로서 창의력 육성 외에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에 안정을 찾고 감성적 에너지를 키워줄 수 있는 미술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의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주요과목에 밀리게 되는 미술교육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측면까지 돌보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법 위주의 표현 중심 수업과 입시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시사해 왔음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결과 아동에게 학교생활과 학업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며, 아동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띠거나 반대로 위축되고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정서적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문제 행동들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미술치료 분야의 도입이 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서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을 적용해보았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자율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통해 정규미술교육에서의 시간적 제약과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미술의 개념과 필요성 및 목적을 알아보고, 미술치료의 개념과 미술치료의 장점, 미술교육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각각의 당위성을 찾고 그에 따른 활용 가능한 미술치료기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미술치료의 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첫째,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내면의 부정적 감정의 표출과 해소를 통한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진다.

둘째,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대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감정의 형성을 도와준다.

셋째, 미술치료의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될 가능성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여 방과후 학교 수업에 적용하였다. 저학년(1·2·3학년) 8명과 고학년(4·5·6학년) 15명으로 구성되어진 총 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수업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고, 내면에 쌓여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활동으로서 수업 분위기가 활기를 띠는 효과를 보였다.

둘째, 장애아동과 위축되어 있었던 아동 역시 기능 위주가 아닌 자율적이면서 감정을 순화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통해 말수가 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산만하고 불안정한 아동의 행동이 본 미술활동 시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업 직후에도 차분해진 행동변화를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정서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미술수업의 지도안을 개발함으로써 미술교육에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미술치료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원인들을 감소시켜주고 아동의 자아성장 뿐 아니라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학교생활을 위해 아동의 내적 에너지에 힘을 실어 넣어 줄 수 있는 미술수업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3
1. 아동미술교육의 이해 .....	3
2. 미술치료의 이해 .....	11
III.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초등방과후학교 미술수업의 실제 .....	28
1. 초등방과후학교 미술교육 .....	28
2. 미술수업의 실제 .....	33
3. 설문 결과 .....	44
4.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미술수업의 기대효과 .....	54
IV. 결론 .....	56
참고문헌 .....	58
<Abstract> .....	60

## 표 목 차

<표 1>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비교 .....	14
<표 2> 미술매체의 특성 .....	19
<표 3> 표현 영역별 미술치료기법과 효과 .....	20
<표 4> 방과후학교의 목표 .....	29
<표 5> ‘방과 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비교 .....	30
<표 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31
<표 7> 1차시 지도안 .....	34
<표 8> 2차시 지도안 .....	36
<표 9> 3차시 지도안 .....	38
<표 10> 4차시 지도안 .....	40
<표 11> 5차시 지도안 .....	42
<표 12> 설문 1 .....	44
<표 13> 설문 2 .....	44
<표 14> 설문 3 .....	45
<표 15> 설문 4 .....	45
<표 16> 설문 5 .....	46
<표 17> 설문 6 .....	46
<표 18> 설문 7 .....	47
<표 19> 설문 8 .....	47
<표 20> 설문 9 .....	48
<표 21> 설문 10 .....	48
<표 22> 설문 11 .....	49
<표 23> 설문 12 .....	49
<표 24> 설문 13 .....	50
<표 25> 설문 14 .....	50
<표 26> 설문 15 .....	51
<표 27> 설문 16 .....	51

<표 28> 설문 17 .....	52
<표 29> 설문 18 .....	52

## 그 립 목 차

<그림 1> 1차시 활동결과 .....	35
<그림 2> 2차시 활동결과 .....	37
<그림 3> 3차시 활동결과 .....	39
<그림 4> 4차시 활동결과 .....	41
<그림 5> 5차시 활동결과 .....	43

## I. 서 론

우리의 교육은 경쟁으로 인해 정서적인 부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쟁은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식위주의 교육이 우선시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내가 먼저라는 이기주의를 부추기거나 위축된 정서로 나타나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정을 키우게 된다. 또한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한 부모의 부재, 무분별한 컴퓨터 사용 등의 문제는 미술치료 분야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을 늘어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에서는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미술교육을 강조하였다. 미술교육은 재능 계발은 물론 미술 활동을 통한 협동과 배려를 배우고 자신감을 상승시키며 아동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주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규 미술교육은 시간적인 제약, 과밀학급으로 인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인 면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정규 미술교육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미술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활동을 통한 심리치료가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아동이 미술심리치료를 받게 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방안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동들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서교육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이기주의와 정서적 안정의 결핍에 대해 미술치료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현재 방과후학교에서 미술치료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미술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방과후학교 미술교육을 미술치료로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미술치료는 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의 목적을 가지므로 다수의 일반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 고통에서의 해방과 감정 정화를 통한 내적 에너지를 키워줌으로서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의 방과후학교 미술교육의 형태

에 미술치료기법을 적용해 보았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치료를 본 논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의 일반 아동에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는 미술치료의 성격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도 활용 가능하도록 미술교육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미술치료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을 도입하고, 그 과정을 통해 아동은 내면을 표현하고 발산하여 불안정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서 문제행동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미술수업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아동미술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미술치료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영역별 미술치료기법을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봄으로서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교육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료연구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면서 방과후학교를 활용하여 미술수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성된 두 개 반 23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미술수업을 5차시 실시하고 각 차시별 결과와 전체수업 후 설문으로 수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아동의 심리치료가 목적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진단과 해석에 관한 내용은 배제하였다.

둘째, 소수의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기법의 종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실시되었기 때문에 모든 미술치료기법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끝으로 방과후학교를 통한 미술교육의 효용성을 알아보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적 목적이 아닌 예방적 목적을 가지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중점을 두어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을 제안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아동미술교육의 이해

아동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작용은 올바른 변화를 촉구하고 미술교육은 그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과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미술교육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아동미술교육의 개념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기 위해 인간이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sup>1)</sup>이며,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변화와 발달을 의미한다. 그 변화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든 내부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든 간에 학습자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보다 진보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미술교육은 미술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형성과 학습자 내면의 가능성을 보다 진보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술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과 독창성은 아동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미술교육을 통한 정서적 안정은 아동의 인격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sup>2)</sup>는 것이다. 그것은 아동의 꿈을 키워주며 상상력과 풍부한 정서를 길러줌으로써 형과 색을 통한 미적 감각의 발달과 상상력을 통한 창의성의 발달을 촉진시켜줌을 말한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고 생활 감정의 표출을 함으로서 내면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지면 아동의 마음속의 갈등이나 기타 감정이 해소·발산되면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게 한다. 이렇게 미술교육이 아동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다.

미술교육은 어느 장소에서든 미술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 이외

1) 백중열·오현숙(2010), 「교사를 위한 아동미술교육의 이해」, 공동체, p.11

2) 권상구(1993),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p.10

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도 포함한다. 오늘날에는 공교육기관 뿐 아니라 미술학원, 사회단체 미술 프로그램, 미술연수, 미술센터의 미술활동, 박물관교육, 미술관 교육, TV광고, 도로나 건물의 선전광고 등을 통하여 미술을 가르친다. 공교육제도 하에서의 미술교육과 함께 미술을 교육하는 모든 활동을 미술교육으로 보는 것이다. 미술교육은 조형적 표현이라는 독특한 창조과정을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육성함으로서 미술교과만이 육성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교육의 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교육을 통해 자기표현과 창의성을 표출한다는 교육적 관점은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에 해당하는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교육이 미술작품을 제작하거나 표현하는 기능이 우선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창의성을 계발하여 나아가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sup>3)</sup>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을 비롯한 미술교육의 변화를 살펴볼 때, 미술의 표현기능만을 익히는 교육은 아동의 상상과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으로 변화하지만 여전히 표현영역만 강조되는 미술교육의 문제점은 미술의 이해와 감상 영역을 강조하는 ‘이해 중심 미술교육’의 중심으로 변화된다.

이해 중심 미술교육은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표현활동 뿐 아니라 이해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sup>4)</sup>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를 통해 미술교육을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켰다.

이렇듯 표현 위주의 미술교육은 감상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되고,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던 미술교육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미술교육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내면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적인 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 미술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 미술교육은 시각적·공간적·조형적 미술활동을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창의력을 육성하고, 시대와 함께 변화해 온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주도해 가는 올바르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의 교육이라 할 수

3) 한국미술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p.160

4)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p.283

있다. 그리고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산하는 미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또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미술교육에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아동의 성장에 있어 모든 부분이 충실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 아동의 내면의 성숙과 외부적 교육 요소들이 조화를 이룬 교육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2) 아동미술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미술은 “시각적 언어이자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표현기능을 기를 수 있고 인간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의 정신적인 면을 다루는 교과라는 점에서 인성의 발달에 큰 비중을 차지”<sup>5)</sup>한다. 교육이 인간이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할 때, 아동미술교육의 목적은 우수한 잠재능력을 가진 아동들의 “미술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형성”<sup>6)</sup>에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신장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게 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표현과 감상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조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미술교육에 따라 발달하는 아동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나누어 미술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외적인 면(표현영역)

아동은 미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으며, 미술 표현과 이해,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과 재미를 스스로 느끼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수용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표현과정에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완성된 작품을 보며 지니는 자부심은 아동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작품이 완성될 때 느끼는 기쁨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형성되고,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친구의 작품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5) 베티 에드워즈(1986), 강은엽 옮김, 「오른쪽 두뇌로 그림그리기」, 미완, p.14-16

6) 백중열·오현숙(2010), 「교사를 위한 아동미술교육의 이해」, 공동체, p.13

아동은 미술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상상, 느낌, 감정, 정서, 성격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미술교육은 그러한 개성 있는 표현의 장이 되어주고 그런 표현을 자극하고 격려해 준다. 미술은 새롭고 다양하게 발상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그것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새롭게 창의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미술의 속성은 분명 창의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은 현대사회가 교육에 기대하는 커다란 요구이며, 미술교육이 이러한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미술교육의 특성인 신선하고 자유로운 가치 있는 표현, 즉 창의성을 다른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그것을 기본 성격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적인 교육은 기억, 논리 등의 인지적 훈련을 중심으로 학습을 전개하여 ‘모르는 것’을 가르치지만, 미술활동은 아동이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한 것들을 그림 또는 입체로 나타내는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동의 사고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표출’하게 한다. “창의적 형태는 사람마다의 독창성 및 풍부한 상상력이 형태화되는 ‘표현’과 결합되어야 비로소 구현”<sup>7)</sup>된다. 미술활동은 창의성 교육을 내용으로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미술수업 과정에서 실제 창의적 활동에 가담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활동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접근이다. 즉,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작품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은 창조적 예술 활동 경험이며, 창작 활동은 인간 자신을 표출하는 삶의 방식이다.

창의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낳게 하는 능력이며 그것은 상상력일 때도 있고 종합적 사고일 때도 있다.”<sup>8)</sup> 종합적 사고일 때도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발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많은 사고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미술활동을 하며 다른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 자신의 상상력을 풍부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기생각을 새롭게 창조하고 재구성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식하면서 자신감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창의성의 육성은 미술교육의 목적이 되어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비로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런 습관이 바탕이 되어

7) 임선하(1993), 「창의성의 초대」, 서울:교보문고, p.20

8) 김춘일(1999), 「창의성 교육 그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p.8

성인으로 성장되었을 때도 생활에서 창의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술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교육에서 창의성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지도에 의해 효율적으로 계발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직감 뿐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 효과적으로 발휘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먼저 아동에게 가르쳐야 할 미술교육내용이 잘 선정되고, 그것을 교사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아동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 창의성은 효율적으로 계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술교육은 표현 영역에 있어 조형성을 키워줌과 동시에 아동의 조형 능력의 함양을 돕는다.”<sup>9)</sup> 조형의 사전적 의미는 ‘모양을 만들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미술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한 형태를 그리고 꾸미고 만드는 조형 행위는 미술 행위의 기본이다. 다른 교과에서는 주로 기호, 언어, 개념 등을 다루지만 조형 활동은 물질을 다루는 경험이다. 재료에 인간의 행위나 시도가 작용하여 가시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모두가 조형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형 능력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작업인 만큼 미술에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미술에 있어 잘 그리거나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는 능력이기 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정신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형태로 가시화시켜 주는 능력”<sup>10)</sup>이라고 할 수 있다. 조형능력은 “시각적 환경에서 질서와 조화, 조형요소와 조형원리 등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서, 미술작품에서 미적 질서와 미술형식을 찾고 이해하고 즐기는 데서,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직접 조형작업을 하면서 길러지는 것”<sup>11)</sup>이다. 즉, 아동이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 능력이 가능할 때 아동은 미술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내면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술작품을 사실적이거나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적인 면 뿐 아니라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시각적 특성을 이해하여 그것을 개선하는, 미술교과에서만 기를 수 있는 조형능력을 함양시킬 수

9) 이규선 외 5인(2001),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52

10) 상계서, p.52

11) 김선현 · 장혜순(2008), 「유 · 아동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예경, p.121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자연과 인공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아동은 그 속에서 조형 원리를 발견하고 조형 활동을 하며 그 환경을 미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조형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 (2) 내적인 면(정서 영역)

인간은 대상을 볼 때 단순히 사실을 인지할 뿐 아니라 ‘아름답다, 밋다, 기분 좋다’ 등의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정서는 “마음과 감정 그리고 걱정의 동요나 혼란, 즉 격렬하거나 흥분된 상태”<sup>12)</sup> 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 다 인간의 내면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과정이고, 미의 대상, 자료, 작품, 환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직접 경험하도록 해주는 미술은 어린이의 정서를 안정되게 하고 순화되게 한다.

아동미술교육은 아동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상상한 모든 것들의 반영이며, 그 행위가 자기표현의 수단이 된다. 미술활동은 아동의 정서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림이 마음의 창문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동미술교육이 가장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그림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여 크게 그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축소하거나 생략해 버리는 것과 같이 감정에 의한 무의식적 표출이 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슬픔이나 기쁨, 분노, 좌절, 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게 되며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시각적 형태로 드러내는 “미술교육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익히게 되고 내면을 표출함으로써 정서를 순화하고 함양”<sup>13)</sup>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을 통한 아동의 정서함양은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감정 인식, 자기감정 조절, 자기 동기부여 능력 향상, 타인의 감정 읽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아동들은 내면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표현함에 있어 미술활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쉽게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낸다.

미술은 보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나타냄으로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상상도 경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서'06(情緒)

13) 양경희(2001), 「21세기를 위한 열린 아동미술교육」, 학지사, p.20

힘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므로 ‘보는 것’은 대부분의 미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미술표현은 보는 것에 의한 시각적인 질서화를 통해 조화를 추구한다. 그런 조화의 관계는 미술 표현의 전 과정과 이해, 감상, 비평에 이르기까지 ‘보는 것’이라는 일관된 요소를 가진다.

우리의 뇌는 “눈을 통해 보고 모든 정보의 80%는 뇌신경의 3분의 1이 눈에 관여”<sup>14)</sup>한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세부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이미지대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사고하고 이에 상응하여 반응한다. 즉, “우리의 뇌는 대상을 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대상의 형태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단순화하여 재구성”<sup>15)</sup>하는 것이다. 보는 것에서 비롯해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조형적인 표현활동은 관찰력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눈으로 정보를 지각하고 미술활동을 통한 손의 감각을 활용하게 되면 아동의 두뇌발달을 도와주게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상을 관찰하여 손의 강약 조절에 따른 그림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찢고 붙이거나, 자르거나, 맞추거나, 두드리는 등의 미술활동을 통해 촉각과 시각이 서로 돕는 상호 작용을 하고 감각을 익히게 되면 아동의 우뇌 발달에 도움이 됨을 말한다.

교육은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아동의 좌·우뇌의 성향이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언어적 교과인 국어와 영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과학교과, 수리적인 수학교과 등을 주요과목이라 말하며, 교육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언어적이고 분석적, 합리적, 논리적인 것을 주로 교육하고 그것을 잘해야만 인정받는다고 여긴다. 이러한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뇌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뇌 발달에 있어 좌·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을 통한 우뇌개발이 필요하다.

우뇌는 “자연과 예술을 접할 때 발달하며, 자연은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하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각적·공간적 자극을 제공”<sup>16)</sup>한다. 많은 예술들이 자연에서 탄생하고 다양한 상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자연과 예술

---

14) 이유명호(2007), 「뇌력충전」, 웅진 지식하우스, p.110

15)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2011),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22

16) 이시형(2005), 「우뇌가 희망이다」, 서울:풀잎, p.240

을 많이 접해야 우뇌가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좌뇌와 우뇌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뇌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사고와 조화로운 인간성의 계발을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 분석적, 수리적 성향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교육에 우뇌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미술교육이 시각을 통해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균형 있는 두뇌발달을 도울 수 있다.

아동은 미술교육을 통해 동일한 대상을 보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직면하는 시각적 현상들을 미적으로 개선하고 가꾸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려서부터 안정된 분위기 속에 미적인 경험을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적, 심미적 성향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사회를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 아동은 미술교육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 자기 주변의 사회와 세계를 미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폭넓은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문화와 정보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필요하고 즐길 수 있는 정보와 문화를 선택하고 활용하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을 미적으로 바라보고 삶 속에서 미적인 것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미적 안목”<sup>17)</sup>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적안목의 계발은 미술이해, 감상과정을 통해 미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정리·발표하고 비평·토론하면서 사물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 미술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이고 방임적인 표현을 통해 학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도 과정과 직접적인 경험, 충분한 학습 자료를 통해 미술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8)</sup>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술의 학습내용들은 아동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아동들의 삶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미술교육은 삶을 미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인 미적안목을 육성하는데 있어 ‘보는 것’을 통한 균형 있는 두뇌발달로서 도움을 준다.

17) 김선현·장혜순(2008), 「유·아동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예경, p.121

18)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2011), 「미술교육학」, p.49

이렇듯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 미술교육은 조형능력이나 창의력, 미적안목의 육성을 미술교육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표현 영역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기에 교사는 아동을 지도할 때 아동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미술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기법의 표현지도도 필요하지만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이라는 미술교육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미술치료의 이해

미술활동의 치유적인 힘과 치료를 위한 미술활동은 결국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미술치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미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기법이 보여주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는 건강한 자아는 더욱 성숙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격의 통합,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위한 치료적 활동”<sup>19)</sup>으로서 치료적인 틀 안에서 미술과 다른 시각적 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술치료에서의 미술활동은 “미술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 내면의 억제, 상실, 왜곡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고 인격을 통합”<sup>20)</sup>하도록 도와 자기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아동은 미술적인 창작활동을 통하여 표현하고, 미술치료사는 그 치료 목표에 따라 미술과정에 개입하고 조정하며 미술을 매개로 아동과 대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

19) 이근매(2008),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양서원, p.11

20) 김선현 · 장혜순(2008), 「유·아동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예경, p.119

미술치료는 “BC 2만년 이전부터 동굴벽화를 통해 주술적인 의미와 치료 의식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임상적 차원의 미술치료는 19C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경험에 입각한 치료를 위한 미술행위는 20C 중반부터 시작되었다.”<sup>21)</sup> 초기 미술치료는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하여 현재 여러 접근법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그 동안 미술치료를 연구한 사람들은 미술이 매개가 되는 ‘치료에서의 미술’을 주장하기도 하고, 미술 자체가 치료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치료로서의 미술’을 미술치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치료에서의 미술은 미술활동을 치료적 양식으로서 이용하는 접근법으로 치료자와 환자사이의 치료적 관계형성과 자발적 그림 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 등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치료로서의 미술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치료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림에대한 환자의 연상을 통하여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함으로써 그림의 치료적 속성으로 인해 자아가 성숙한다고 본다. 즉, 미술작업을 통하여 환자 자신의 파괴적, 부정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전환시킨다는 것이다.<sup>22)</sup>

이후 ‘미술과 치료의 통합적 입장’을 통해 미술과 치료 양쪽이 함께 진행하여야 진정한 미술치료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 통합적 입장은 미술에서의 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공간에 있는 두 측면이거나 또는 다른 시점에 동일한 치료자가 일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작품이 예술이나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는 대상에 따라서 상동적인 표현이나 강박적인 표현도 허용해야 하지만 예술적 성취감을 중시해야 한다. 즉, 미술치료의 통합적 입장은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내포”<sup>23)</sup>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술치료에 있어 접근방법이나 적용대상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미술치료는 결국 이미지 표출 과정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술치료는 비언어적 표현 방법인 미술 작업을 통하여 인간 심리를 진단하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천적 내적 갈등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수단이다.

21) 고현 · 유시덕 외 5명(2008), 「매체를 활용한 유·아동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창지사, p.25

22) 천은영 · 김경신(2010), 「그림을 통한 아동미술치료」, 신평문화사, p.5

23) 김영민(2010), 「제3의 임상미술치료개론」, 이담북스, p.14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촉진”<sup>24)</sup>시킬 수 있으며, 자발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개인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것을 도와주는 미술치료사는 인간이 표출하는 본능적 미술표현과 그 과정 속에서 심리학 해석을 찾아내어 내담자가 감정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충분한 임상경험 등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2) 미술치료의 특징

미술교육은 자기표현이라는 치유적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의 어떠한 효과를 받아들여 미술교육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논하기 위해 우선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미술치료의 장점과 미술치료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오늘날에는 아동의 미술활동이 단지 교육으로서의 입장 뿐 아니라 치료적인 입장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치료라는 효과를 본다. 그래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미술치료에서는 활동 자체가 치료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술교육은 아동의 성장을 돕고 전인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술치료는 심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의 성장 및 심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미술교육도 치료적인 면들을 지닌다. 미술은 긴장을 풀게 하고, 규율에서 자유를 느끼게 하고, 말할 수 없던 생각들과 감정들을 표현하게 하고,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말로 옮기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생각들을 표현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술은 치료적인 힘을 내재”<sup>25)</sup>하고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무의식을 시각적으로 표출하여 치료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24) 최외선 외 4명(2006),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p.12

25) 유미(2010), 「정신분열증 환자의 미술치료와 삶의 질」, 이담북스, p.59

미술치료 역시 창작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미술치료에서의 교육은 치료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위한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술치료사가 미술기법을 가르칠 때는 단순히 기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법으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보다 분명히 표현하게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승화를 경험하게 하며 또는 높은 자존감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가르친다는 점에서 미술교육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 1>을 통해 비교하고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비교

	미술교육	미술치료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삶과 자아의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개인 성장을 돕는다.</li> <li>•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li> <li>• 아동의 두뇌발달 등 성장 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li> <li>• 정서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li> <li>• 표현을 통해서 내면의 문제, 희망,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른 어떤 접근보다도 효과성이 높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발달이 무시될 수 있다.</li> <li>• 재료와 환경은 개인의 문제에 따라 결정한다.</li> <li>• 개인차에 따라 목표를 달리 설정한다.</li> <li>• 주관적 경험을 우선으로 한다.</li> <li>•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갈등상황의 감정을 방출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유도한다.</li> <li>• 아동의 문제해동에 따른 예방이 가능하다.</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발달에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li> <li>• 재료와 환경을 목표에 따라 결정한다.</li> <li>• 발달에 따라 목표를 단계화할 수 있다.</li> <li>• 창의성과 인지적 성장을 촉진시킨다.</li> <li>• 자아표현과 심리적인 표출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발달이 무시될 수 있다.</li> <li>• 재료와 환경은 개인의 문제에 따라 결정한다.</li> <li>• 개인차에 따라 목표를 달리 설정한다.</li> <li>• 주관적 경험을 우선으로 한다.</li> <li>•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갈등상황의 감정을 방출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유도한다.</li> <li>• 아동의 문제해동에 따른 예방이 가능하다.</li> </ul>

※ 출처 : 고현·유시덕 외 5명(2008), 「매체를 활용한 유·아동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창지사, p.30

위 내용을 통해 보면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 자아의식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진다. 미술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로서 아동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을 통한 내면의

문제, 희망,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과성이 높다. 그 외에도 두뇌발달 등 아동의 성장발달에 효과적이며 정서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미술교육은 아동의 일반적 발달에 중점을 두어 창의성과 인지적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미술치료는 일반적 발달과 상관없이 주관적 경험을 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미술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재료와 환경을 결정할 수 있지만, 미술치료는 개인차에 따른 목표설정은 물론 재료와 환경까지 결정한다. 그리고 “미술교육은 자아표현과 심리적인 표출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활동인 데 반해 미술치료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갈등상황의 감정을 방출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유도한다”<sup>26)</sup>는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 미술치료의 기법을 활용하려는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미술교육의 자아표현과 표출에서 그치지 않고 감정을 해소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서의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차이점에 덧붙여 미술치료사가 미술교사와 다른 점은 “미술 평가를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임상으로 훈련된 눈으로 보며 심리학으로 조율된 귀로 듣는다”<sup>27)</sup>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치료사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이해하기 위하여 미술이 도울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시각적인 미술을 숙달하려면 연구와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심리학과 심리치료를 숙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모든 치료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미술치료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은 경험으로만 이루어진다. 미술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감독받는 임상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우 민감한 미술가나 미술교사라 하더라도 학생이 누구든 교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치료사는 아니기 때문에 미술을 치료수단으로 제공하려면 임상가가 되기 위한 충분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

사회적 발달과 변화로 인한 아동의 이기주의와 정서적 안정의 결핍은 내면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미술치료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미술치료의 기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미술치료가 가지는 ‘예방적

26) 고현 · 유시덕 외 5명(2008), 「매체를 활용한 유·아동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창지사, p.30

27) 전세일 · 김선현(2009), 「동서의학과 동서미술치료」, 학지사, p.312

효과'라는 미술치료의 성격을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의 일반 아동에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불안정을 예방”<sup>28)</sup>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미술치료는 전문가가 아니면 시행되어서는 안되므로 일반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도 활용 가능하도록 미술교육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미술치료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아동은 “내면을 표현하고 발산하여 불안정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서 문제행동을 예방”<sup>29)</sup>하게 되는 것이다.

## (2) 미술치료의 장점

시간이 지나면서 미술치료가 주목받는 것은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타 기법과 비교했을 때 지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미술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펴 보았다.

미술활동은 비언어적인 감성으로 시각적 요소들이 자유로운 공간 속에 법칙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아동 주위의 개인과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준다. 아동의 주변이나 관계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야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치료에 있어 미술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이 어렵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위축이나 조증, 신경증 등의 문제를 미술로 표현하면서 감정의 정화를 경험”<sup>30)</sup>하게 된다. 미술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축된 아동의 신체적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미술작업을 진행하고, 토론하며, 감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대체로 활기찬 모습을 띠게 된다. 미술치료는 창조 활동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아동의 성장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 심상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자극함으로써 창조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는 말이란 형태를 취하기 전에 심상(image)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아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초기 경험은 중요한 심상의 요소가 되며, 그 심상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심리적 치료에서의 미술활동은 비언어적 수단으로서 통제를 적게 받고 가끔 창작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예상치 않았던 자신을 인식하고 깨달음으로서 자아의 성장이 유도”<sup>31)</sup>

28) 유미(2010), 「현장적용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 이담북스, p.233

29)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2011),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418

30) 김선현(2006), 「임상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p.11

31) 천은영 · 김경진(2010), 「그림을 통한 아동미술치료」, 신광문화사, p.15

된다. 그리고 아동의 감정이나 사고 등이 그림이나 조소와 같은 하나의 사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작품을 보고 작품 제작 당시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 “제작된 미술작품은 보관이 가능하여 아동이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sup>32)</sup> 즉, 그림이나 조소와 같은 작품이 주관적인 기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고, 아동의 작품변화를 통해서 치료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해 당시 그 아동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미술치료에서 미술은 아동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 가치관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술치료의 장점 중 본 연구자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한 미술작업 그 자체가 즐거움과 흥미를 주어 심리적 긴장 완화와 감정의 표출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술치료의 기법을 활용하여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내면의 문제로 인한 문제행동의 예방을 도울 수 있다.

### (3) 미술치료의 적용

미술치료는 우선 미술치료사를 포함한 미술치료실 환경과 시간 구성, 미술매체가 적절하게 작용하여야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술작업을 위한 “치료실은 그 크기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적당한 넓은 공간과 충분한 채광, 미술도구 등이 필요”<sup>33)</sup>하다. 치료실은 어떤 환경이든 아동의 신체적 상황과 심리적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술치료실은 아동에게 특별한 공간이어야 하며 자유로운 치유적 공간으로서 다른 장소와 환경에서는 행해지기 어려운 일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 아동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적절한 조명과 적당한 온도, 쾌적한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아동의 안정감을 위해서 미술재료들은 정돈되어 지정된 장소에 놓여있어야 한다.

미술치료의 “시간구성은 치료목표나 대상,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되며 치료의 기간과 빈도, 사용될 매체, 활동내용, 치료종료 등이 시간계획에 포함”<sup>34)</sup>된다.

32) 김선현 · 장혜순(2008), 「유·아동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예경, p.119

33) 김영민(2010), 「제3의 임상미술치료개론」, 이담북스, p.296

34) 최외선 외 4명(2006),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p.18

아동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주 1, 2회 정도의 미술치료가 이루어진다. 첫 상담에서는 언어에 의한 접촉을 하며 치료비, 시간계획, 도구의 선택, 그림의 주제 선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미술치료에 있어 시간은 흥미를 유지하고 치료과정에 개입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긴 시간을 의미한다. 아동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마쳐야 할 시점에서 경고를 해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친다는 것은 가끔 아동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적절한 매체의 선정이라든가 구조적 프로그램에 의해 시간에 맞추어 실시하는 등 시간 한정의 어려움에 적응할 방법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술치료사는 다양한 미술매체들을 심리치료에 적용하며, 이러한 미술재료는 치료 시간, 공간, 아동의 성향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 특히 아동의 성격은 재료를 선택할 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미술치료에 있어 매체는 큰 역할을 하는데, 매체는 각각 특수한 능력과 적절한 이용가치가 있다. “도구나 매체의 숙달 과정에서 표현된 생각과 감정은 실습을 통해 현실세계를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아동이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미술치료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는 매체의 특성과 사용법, 매체의 장·단점 등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매체 선택에 있어 아동의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공간과 아울러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재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미술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동이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좌절감을 거치지 않게 매체의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술치료사들은 구조화된 매체보다는 덜 구조화된 매체를 그리고 복잡한 매체보다는 단순한 매체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덜 구조화된 매체일수록 상담자의 심리적인 투사에 용이하며 상담자의 감각을 더 자극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매체보다는 스스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게 해주며 그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

<표 2>를 보면 왼쪽 1번으로 갈수록 심리적인 통제가 낮은 재료들이다. 오른쪽 10번으로 갈수록 의식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재료들이며, <표 2>는 다음과 같다.

---

35) 김동연·최외선(1997), 「아동미술치료」, 한국미술치료학회 제 17회 연수회 자료집

<표 2> 미술매체의 특성

젖은 점토	그림 물감	부드러운 점토	오일 파스텔	두꺼운 펠트지	폴라쥬	단단한 점토	얇은 펠트지	색연필	연필
1	2	3	4	5	6	7	8	9	10
←가장 낮게 통제					→가장 높게 통제				

※출처 : Landgarten(1987) : 최외선 외 4명(2006),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p.20

이처럼 미술매체별 특성을 통제의 높고 낮은 매체로 나눈 것으로 보아 매체는 정서적인 반응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술매체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미술매체의 제시가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미술재료 중 물감, 젖은 점토 등은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어서, 성격이 경직된 아동에게 주로 적용하지만 충동적이고 자아경계가 불분명한 아동에게는 충동적 성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적용을 자제”<sup>36)</sup>한다. 반면 색연필, 사인펜과 같은 딱딱한 재료는 높은 통제력을 지닌 재료로서, 충동적 성향을 통제하기 용이한 재료로 쓰인다. 특히 쉽게 찢어지는 신문지나 잘 부서지는 분필과 같은 좌절을 유발시키는 재료들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동의 성격과 반대성향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내면세계에 억압된 부분을 재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해주고 작품 활동을 통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술치료사는 정해진 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재료를 선별하고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술치료사는 미술매체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인식하여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재료, 욕구표출에 용이한 재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재료, 자발성을 향상시키는 재료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 3) 미술치료기법

아동이 그린 그림은 내담자의 내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 진단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왔다.

36) 고현 · 유시덕 외 5명(2008), 「매체를 활용한 유·아동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창지사, p.135

미술치료의 기법은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의 이론적 측면,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구분”<sup>37)</sup>할 수 있다. 미술치료기법은 크게 진단을 위한 기법과 치료를 위한 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진단과 치료라는 기법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기법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 문제 또는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하고 해소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기법과 치료를 위한 기법의 구별 없이 평면적 표현과 입체 표현, 오브제 표현으로 나누어 영역별 기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술치료기법만을 활용하려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그림 검사에 의한 자세한 상징과 해석을 배제하고 영역별 표현에 따른 기법과 그 영역별 이점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표 3>을 통해 살펴본 후 각각의 기법에 관해 설명하도록 한다. <표 3>은 다음과 같다.

<표 3> 표현 영역별 미술치료기법과 효과

표현 영역	미술치료기법	효 과
평면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화 그리기</li> <li>• 집,나무,사람 그리기</li> <li>• 동적 가족화 그리기</li> <li>• 동적 학교화 그리기</li> <li>• 테두리법</li> <li>• 난화이야기법</li> <li>• 계란화 그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표현 영역에 비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감정, 근심, 문제점, 소망, 기원, 꿈 등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li> </ul>
입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본뜨기</li> <li>• 손본뜨기</li> <li>• 지점도 및 찰흙 활동</li> <li>• 핑거페인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찰흙이나 점토와 같은 퇴행을 촉진시키는 매체를 통해 내면에 억압된 감정의 경계를 풀고 해소할 수 있어서 욕구표출에 용이하다.</li> </ul>
오브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주</li> <li>• 만다라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li> </ul>

37) 이근매(2008),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양서원, p.151

### (1) 평면적 표현 영역

그리기에 해당하는 ‘평면적 표현 영역’의 미술치료기법에는 인물화 그리기, 집·나무·사람 그리기, 동적 가족화 그리기, 동적 학교화 그리기, 테두리법, 난화 이야기법, 계란화 그리기 등이 있다. 이 기법들을 통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생각, 감정, 근심, 문제점, 소망, 기원, 꿈, 갈망을 다른 기법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 기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물화 그리기

인물화 그리기는 “다른 여러 가지 투사검사 중 보다 더 깊이 있는 무의식적 심리 현상을 표현”<sup>38)</sup>할 수 있어 아동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준다. “인물화는 자기모습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아동은 부모의 상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다.”<sup>39)</sup> 아동은 인물상을 통해 의미 있는 사람, 자신의 성적 역할, 일반적 인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서 내면에 존재한 자기의 현실상이나 이상적 인간상을 스스로 바라보고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인물화 분석은 집·나무·사람 그림이나 가족화의 기초가 되므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그림은 “인물화 순서, 그림의 크기, 그림의 위치, 인물의 동작, 왜곡이나 생략, 각 신체부분들의 상징을 통해 해석”<sup>40)</sup>한다. 먼저 묘사된 인물의 부분적인 특징과 각 신체 부분들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각 신체 부분들의 비율이 정확하게 조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사실적 자료와 아동이 처한 상황, 증상, 각 신체 부분들의 상징을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인물화 검사 시 미술치료사가 유의할 점은 아동에게 그림을 요청한 후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림을 그리는데 소요된 시간, 그림을 그리면서 보이는 정서적 반응, 태도, 그림을 그리는 방법, 순서 등을 잘 관찰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실시방법은 우선 A4 용지 2장과 연필 2-3자루, 지우개 등의 준비물을 마련해 놓고, 아동에게 한 장의 종이를 세로로 제시하여 사람의 전신상을 그리도록 한다.

38) 박현주(2009), 「미술치료 진단기법의 이해」, 양서원, p.157

39) 김선현(2006), 「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이담북스, p.115

40) 정여주(2003), 「미술치료의 이해 : 이론과 실제」, 학지사, p.71

한 장의 종이에 다 그리고 나면 다른 종이를 세로로 제시하고 먼저 그린 사람과 다른 성의 사람을 그리도록 한다. 인물화 검사를 할 때는 만화나 막대 인물상으로 그리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그릴 것을 인지시킨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는 그림의 인물을 보며 성별, 나이, 인물상에 대한 의견을 말하게 하면서 아동의 반응을 잘 기록한다.

### ② 집-나무-사람 그리기

집-나무-사람 그리기는 인물화 그리기의 인물상이 적용되어 그리기도 하는데 “아동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며 과거를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는 기법”<sup>41)</sup>이다.

집, 나무, 사람으로 3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의식·무의식 연상을 통한 솔직하고 자유스러운 언어표현이기 때문이다.

집-나무-사람 그리기 기법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명백하고 큰 특징을 먼저 다루고 검사 후 이루어지는 질문에 따른 아동의 이야기에 따라 해석”<sup>42)</sup>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그림의 전체적 인상과 조화, 구조, 이상한 부분은 없는가에 주목한다. 그림의 전체를 보고 평가한 후 구조적 분석을 통해 집, 나무, 사람 등을 어떻게 그렸는가를 분석하며 아동의 성격을 파악한다. 그리고 무엇을 그렸는가 하는 내용을 분석한다.

실시방법은 B5용지 4장, 연필, 지우개 등을 준비하고, 종이를 한 번에 한 장씩 가로로 제시하면서 각각의 종이에 집, 나무, 사람, 앞서 그린 사람과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대로 그리도록 지시한다. 집-나무-사람 그리기 기법 역시 아동이 사람을 그릴 때 만화나 막대인물상은 피하도록 유의시킨다.

### ③ 동적 가족화

동적 가족화는 “일종의 투사화로 움직임의 더하는 가족 그림을 통해서 아동의 가족관계에 따른 심리적 상태와 가족의 역동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sup>43)</sup>이다. 아동 자신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일상생활 태도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아동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아동의 가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아동이 가족

41) 이경화(2002), 「방과후 아동지도사 실무」, 학문사, p.96

42) 최외선 외 4명(2006),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p.150

43) 김선현(2006), 「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넥서스BOOKS, p.104

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직면하고 이야기함으로써 관계의 개선이나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동적 가족화의 해석은 “단순히 그려진 그림의 형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 인물상, 행위의 종류, 묘화의 양식, 상징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해석”<sup>44)</sup>해야 한다.

실시방법은 A4용지와 연필, 지우개를 준비하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이 때 미술치료사는 아동의 질문에 완전히 비지시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암시하는 듯한 응답은 피해야 한다.

#### ④ 동적 학교화

동적 학교화는 ‘학교생활화’라고도 하는데, 학교의 친구와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아동의 학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분석한다. 학교에 관한 학업 인식이나 자기인식, 아동의 교사상, 친구상과 친구관계를 파악하여 “아동의 학업에 관한 부담이나 친구, 교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내재해 있던 부정적 요소가 해소되고 대화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향상”<sup>45)</sup>시켜 줄 수 있다. 동적 학교화의 해석도 동적 가족화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인상, 인물상, 행위의 종류, 묘화의 양식, 상징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진다.

실시방법은 A4용지와 연필, 지우개를 준비하고 학교 그림을 그리며 아동 자신과 선생님, 학생 2명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그리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아동의 상태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지시해도 무방하다. 그림이 완성된 후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그림에 관한 질문을 한다.

#### ⑤ 테두리법

테두리법은 아동에게 도화지를 제시하면서 아동이 보고 있을 때 용지에 테두리를 하여 건네주는 방식인데 묘화를 자극하고, 공포를 줄일 수 있어 자아가 허약한 아동에게 사용되고 있다. “소극적이고 위축된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테두리법을 활용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나게 하여 자기방어를 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법”<sup>46)</sup>이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모양을 그려주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원을 그려 주고 원 안

44) 이근매(2008),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양서원, p.167

45) 박현주(2009), 「미술치료 진단기법의 이해」, 양서원, p.114

46) 유미(2010), 「현장적용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 이담북스, p.72

에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하게 하면 과잉행동, 주의산만 등을 통제할 수 있다.

#### ⑥ 난화이야기법

난화이야기법은 자유로운 난화 속에서 의미 있는 사물을 찾아 표현하는 기법이다. 아무렇게나 선을 자유롭게 그린 후 이미지화하여 그림을 그린 뒤 상호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종이에 자유롭게 낙서한 뒤에 서로 교환하면서 상대방의 낙서를 보고 각자 연상되는 그림을 그 위에 그려 완성한 후 치료사가 완성된 그림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가고 다시 내담자가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중학생 이상의 내담자에게 주로 사용되며, 내담자의 언어를 촉구할 수 있고 그려진 사물과 이야기의 내용을 통하여 심리진단 및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⑦ 계란화 그리기

계란화 그리기는 원형의 하나인 타원테두리를 공간묘화에 이용한 기법이다. “계란이라고 하는 물체이미지를 자극하고, 타원테두리 내측에 초점을 두어 계란을 발견하고 파괴시켜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을 그림의 공간에 표현하는 것”<sup>47)</sup>이다. 원형은 그림의 상징성이나 그림 공간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계란화 그리기는 타원테두리의 공간파괴에 아동이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지만 금기되어 있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또는 희망하는 감정을 찾아내고 나오는 심리적 표현을 통해 아동의 현재 에너지를 알 수 있게 하고 그 에너지의 분출을 통한 감정 정화가 가능해진다.

실시방법은 먼저 치료사가 종이에 계란 형태의 큰 타원을 그려준다. 미술치료사는 아동에게 타원테두리가 계란임을 인식시키고, 계란에 금을 그리고 나면,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여 아동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란의 껍질과 함께 그리도록 지시한다. 그림이 완성되면 ‘계란에서 이런 것이 태어났구나’ 라고 소감을 말하는 정도로 끝내고 아동이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존중해준다.

---

47) 최외선 외 3명(2006), 「미술치료기법」, 학지사, p.157

## (2) 입체 표현 영역

입체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미술치료기법은 신체본뜨기, 손 본뜨기, 지점토·찰흙 활동, 핑거페인팅 등을 들 수 있다. 입체 표현 영역은 주로 조소활동에 관련된 것이 많은 편인데 점토와 찰흙 같은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체를 통한 기법은 아동의 내면의 억압된 감정의 경계를 풀고 해소할 수 있어 욕구표출에 유용하다. 이 영역의 기법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감소할 수 있게 하는 치료적 기법으로 자주 활용된다.

### ① 점토 미술활동

점토로 하는 미술활동은 미술치료에서 자주 다루지는 기법으로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 노인 등 모든 연령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이다.

점토의 만지는 대로 자유롭게 변하는 성질은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점토 활동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긴장과 억압의 상태에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신체적 긴장을 이완해준다. 또한 점토의 부드러운 촉감은 쾌감과 친근감으로 마음의 억압과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점토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치고 두드리고 주무르다 보면 공격에너지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분출된다.

### ② 신체본뜨기

신체본뜨기는 “신체의 내면과 외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체 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나 자아개념이 부정적일 때 자신의 소중함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sup>48)</sup>된다. 이 기법은 큰 종이를 바닥에 깔고 내담자를 위에 눕게 한 다음 몸을 따라 선을 그린 후 자유롭게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표현하는 활동이다.

### ③ 핑거페인팅

핑거페인팅은 물감을 손에 묻혀 종이 위에 찍거나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작업을 자유롭게 하는 미술활동이다. 주로 미술치료 초기나 말기에 사용하는데, “정서의 안정과 거부, 저항의 감소, 이완 등의 효과를 가지며 작업의 촉진, 스트레스 해소, 아동의 성취감 형성 및 감각발달을 촉진”<sup>49)</sup>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발달지체 아동이

48) 옥금자(2005), 「청소년 임상미술치료 방법론」, 하나의학사, p.211

49) 유미(2010), 「현장적용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 이담북스, p.74

나 부적응 아동이 물감을 섞고 찍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적절한 행동(물감으로 손장난하기, 물감을 옷이나 얼굴에 문지르기, 주위에 튀도록 물감을 치기 등)이 있을 때는 보조 치료사를 두어 행동 통제를 같이 하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오브제 표현 영역

오브제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미술치료의 기법은 풀라쥬와 만다라 만들기를 들 수 있다. 이 영역의 기법은 주로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 ① 풀라쥬

풀라쥬 기법은 하나의 미술치료기법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잡지 등 인쇄물에서 오려낸 조각을 도화지에 붙여서 완성하는 것이다.

이 기법은 “아동의 방어기제가 적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 공포, 수줍음 등을 감소시켜 생각, 근심거리, 감정 등의 자기 표출도 용이하게 하며 작품 활동 시 집중력을 향상”<sup>50)</sup>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풀라쥬 미술활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선택성과 회피성 두 가지가 모두 높다는데 기인한다. 즉, 여러 도형 등 재료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해 잘라낼 수 있고, 또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며 자른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풀라쥬 미술치료는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아동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시된다.

#### ② 만다라

만다라 기법은 만다라를 통하여 분열된 자신을 통합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 중심에 이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만다라(Mandara)는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 마음속에 참됨을 갖추고 있거나 본질을 원만히 하는 것”<sup>51)</sup>이다.

원형심상을 지향하는 만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자기인식의 표상으로서 자아와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명상을 통한 마음의 안정으로 여유를 찾게 되면서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외부세계를 떠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불안이 사라져 긴장이 완화되면서 충동성을 감소”<sup>52)</sup>시켜 주는 효과

50) 윤혜선(2010), 「해피아트테라피」, 이담북스, p.74

51) Susan I. Buchalter, 최은미 옮김(2011), 「미술치료 기법과 적용」, 시그마프레스, p.46

52) 천은영 · 김경신(2010), 「그림을 통한 아동미술치료」, 신광문화사, p.47

가 있다. 만다라 작업은 상징적 의미에 치중하기 보다는 표현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작업과정에서 몰입하는 정도, 작업에서 자신이 느껴가며 자각해 보는 감정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다라는 문양색칠 만다라, 풀라주 만다라, 종이접기를 이용한 만다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품제작이 가능하다.

실시방법은 먼저 모든 재료를 내려놓고 몇 분간 명상을 통해 이완작업을 한다. 이완이 되면 눈을 감고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춰 내면에 떠오르는 색상, 형태, 느낌 등으로 이미지를 보도록 한다. 눈을 뜨고 앞에 놓여있는 종이에 직접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둥근 종이접시 등에 직접 만다라를 제작한다. 자유연상으로 그려도 좋고 다한 후에 심상을 시로 써서 나타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미술활동을 통한 치료가 정서적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미술활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심리적 치료 효과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술치료 기법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치료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미술치료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미술교육에 치료적 기법의 장점을 적용하여 활용, 계획하고 실시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초등방과후학교 미술수업의 실제

본 장에서는 미술교육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이라는 목적에 맞고, 미술치료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성장’이라는 목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서 본 연구가 왜 방과후학교 미술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 1. 초등방과후학교 미술교육

##### 1) 방과후학교의 개념과 목표

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을 말하는데, 특기·적성 교육 위주의 방과 후 활동은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한 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육 뿐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또한 소득 계층별·지역별 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단기적으로는 학업 성취도의 격차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학력 간 임금·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사회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교육기능보완, 교육복지 실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 명칭과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 운영”<sup>53)</sup>하였다.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인성·창의성 신장 및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나아가서는 계층간·지역간

53)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방과후학교를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비전에 따른 방과후학교의 목표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방과후학교의 목표

목 표	추 진 방 안
학교교육기능보완	특기· 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교육비 경감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교육복지 실현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6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 2) 방과후학교의 정책 발전 과정

방과후학교는 현재 많은 정책 발전 과정을 겪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5년 교육 개혁안을 시작으로 특기· 적성 교육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을 도입했으나 다양한 과외 욕구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 교육, 방과 후 보육 시행 이후 2006년부터 자율성다양성· 개방성이 확대된 혁신적인 교육체제로서 방과후학교가 도입되고,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주체 개발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자율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54)</sup>

이후 방과후학교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그 내용으로 교육청이 수립한 시· 도별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방과후학교의 운영 특징을 알아보면, 현직 교사가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던 방과 후 교육활동은 교사의 운영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사를

<sup>54)</sup> 교육인적자원부(2009), 「200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학생 뿐 아니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인근 다른 학교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으며 수요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방과후학교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조직, 단체, 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맺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의 학생들을 위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위의 내용에 따른 기존 방과 후 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은 <표 5>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 5> ‘방과 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비교

구분	방과 후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추진방향
운영주체	학교장 중심	학교장, 대학, 비영리 법인(단체)등에 운영주체의 개방성 확대	운영주체의 개방화
지도강사	현직교원 중심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다양화	지도강사의 다양화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위주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대상의 다양화
교육장소	본교 시설 위주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활용을 극대화	교육장소의 다양화
프로그램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중시	프로그램의 수요자 중심 개설 및 선택
교육비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소외계층 집중지원, 교육의 형평성 실현	교육격차 해소
실시시간	정규 교육시간 외 방과 후 특기·적성 시간	일과 전과 후, 토요일휴업일, 방학 중에 실시 가능. 돌봄과 보호의 기능 수행	실시시간의 자율화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방안」, 2010 정책개발연구사업, p.15

이와 같이 정부, 교육청,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방과 후학교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참여율도 2009년 57.6%, 2010년 63.3%에서 2011년 65.2%로 매년 증가”<sup>55)</sup>하고 있다.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현황분석에 따른 <표 6>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프로그램보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율이 더 높으며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 프로그램의

55) 교육인적자원부, 「2009~2011년 6월, 방과 후 학교 현황 분석」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교과교육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계
초등학교		70,852	130,734	201,586
중학교		115,058	29,363	144,421
고등학교		169,248	15,395	184,643
계	수(개) 비율(%)	355,158 (66.9)	175,392 (33.1)	530650 (10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11년 6월),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이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게 한다는 방과후학교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 외의 효과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교육은 학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할 때 잘 수행된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지역사회에 심어주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방과후학교가 학교와 지역 사회를 협력하고 상호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특기 및 학력신장, 자녀 보육 및 보호, 어머니의 취업 확대, 사교육비 경감, 토요일 휴업일이나 방학 중에 자녀교육 및 보호, 지역 사회의 고용인력 창출, 지역사회에서의 야간 도서관 개방 등과 같은 방과후학교의 운영결과”<sup>56)</sup>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다.

### 3) 방과후학교 미술교육

초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초등 돌봄 교실로 나뉜다. 방과후학교 미술교육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속하며 학교 미술 수업에서와 같은 회화, 디자인, 공예, 판화 뿐 아니라 종이공예, 칼라점토, 만화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하다. 초등방과후학교 미술교육은 다양한 미술활동

56) 한국교육개발원(2010. 6), 「방과후학교 현황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을 통하여 아동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미리 발견하고 계발시킬 수 있으며 미술 전공교사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교과서에서 벗어나 지도교사의 재량으로 독특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방과후학교의 장점은 방과후학교 미술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소수 학생으로 모집될 경우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정확히 연구하여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한 만큼 몇몇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술치료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임상 경험이 많은 미술치료사를 채용해야 하며, 내면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아동의 치료의 목적으로 미술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 차원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은 가능하지만 다수의 일반아동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 제약이 많은 정규 미술교육에서보다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에서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하여 미술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수업을 방과후학교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교사는 아동이 작품에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의미 있게 말하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교사는 아동의 미술 실력 평가를 위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아동은 내면을 표현하고 불안한 감정을 표출하여 해소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은 물론 자존감(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감정)형성에 도움을 주어 자아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의 장점과 미술치료의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교사의 시간적 제약과 평가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자존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의 미술교육 형태에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 2. 미술수업의 실제

본 수업은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을 적용하여 방과후학교 미술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차시별 활동 변화와 전체 수업 후 설문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수업은 5차시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고, H 초등학교의 방과 후 미술수업에서 저학년(1·2·3학년) 8명과 고학년(4·5·6학년) 15명으로 구성되어진 총 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업시간은 저학년은 90분, 고학년은 80분의 시간 동안 도입과 활동, 감상으로 진행하였다.

### 1) 수업의 전개

본 연구는 5차시에 한정해 이루어진 수업이기 때문에 미술치료 기법 중 몇 가지만을 적용할 것이며, 각 수업에 대한 설명과 기대효과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연구에 적용된 미술치료기법은 지도안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 (1) 1차 수업 - 색종이 찢어 붙이기와 신문지 찢기

##### ① 수업의 개요

색종이를 찢어 붙이는 아동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완성하며 아동의 소근육 발달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미술치료기법 중에 신문지 찢기는 감정발산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며 체험 미술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엇인가를 찢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은 제약 없이 무언가를 찢고 날리는 활동을 통해 마음에 쌓여있던 감정을 해소하게 된다. 즉, 종이 찢어 날리기를 통해 감정을 외부로 발산시키며 감정의 정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완성함으로써 기분을 전환시키고 아동의 소근육 발달과 감정의 순화를 목적으로 종이를 찢으며 신문지를 찢고 날리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② 지도안

<표 7> 1차시 지도안

활동명	색종이 찢어 붙이기와 신문지 찢어 날리기
주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준비물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수채도구, 색한지, 풀
진행방법	<p>도입&gt;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프린트 된 종이를 고르게 하고, 색종이를 잘게 찢어 붙이면서 캐릭터의 칸을 채워 줘야 함을 알려준다. 칸을 채워줄 때는 꼼꼼하게 채워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더불어 수업 20분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p> <p>활동&gt;          색종이 찢어 붙이기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꾸며 완성한다.          캐릭터를 완성할 때는 종이를 잘게 찢어 꼼꼼하게 채워줘야 함을 수업 중간 중간 알려주도록 한다.          수업 20분을 남겨두고 캐릭터 꾸미기를 완성한 후에는 신문지 찢기 활동을 위해 교실 뒤 공간으로 모두 이동한다.          아이들과 같이 원으로 둘러 앉아 신문지 찢기 활동 시 둘러앉은 원 안에서만 신문지를 찢고 날려야 한다는 유의점을 말한다.          신문지 찢기 활동 전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본다.          눈을 감고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그 때의 기분을 느낀다.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신문지라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신문지를 찢거나 격파한다.          찢은 신문지 날리기를 통해 스트레스도 날려버린다는 생각으로 신문지를 힘차게 높이 하늘위로 던진다.</p> <p>정리&gt;          활동 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날린 신문지를 정리하도록 한다.          다음 차시를 예고하고 수업을 마친다.</p>

③ 결과분석

아이들은 좋아하는 캐릭터를 색지를 이용해 만들어 붙이면서 처음엔 조금씩 찢어서 붙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떡엄떡엄 붙였으나 점점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화면을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문지를 찢고 날리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도 다시 모아 날리고 뿌리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담겨있던 스트레스

를 다 날려버린 거 같아 시원하다고 말하며 다음에 또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문을 찢는 활동 시 내성적이거나 위축된 성향의 아이들은 초반에는 주춤하며 다른 아이들이 찢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다 조심스럽게 한번 두 번 찢어보더니 결국 다른 친구들보다 더 신나게 찢고 날리는 모습을 보였다.

본 수업에서 아이들은 종이 찢기를 통한 내면 표출과 발산을 통해 감정의 해소를 경험함으로써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1차시 활동결과

(2) 2차 수업 - 나의 손 본뜨기 후 신체 본뜨기 그림에 풀 작업하기

① 수업의 개요

신체 본뜨기는 미술치료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존감(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감정)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신체의 표현을 통해 올바른 자신을 대상화하고 인지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성립하여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풀 작업을 통한 긴장감 이완과 친구의 신체를 본뜨고 풀로 채워주며 이야기 나눔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을 연습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루 석고를 이용해 손을 본뜨며 자신의 신체를 객관화 시켜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큰 종이에 친구의 신체를 본 뜬 후 긴장감을 완화시

키도록 묶은 재료인 밀가루 풀을 채워주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② 지도안

<표 8> 2차시 지도안

활동명	석고작업 후 풀 작업
주제	나의 손 본뜨기
준비물	찰흙2봉지, 석고가루, 고무그릇, 아크릴 물감(금색), 밀가루 풀, 큰 종이
진행방법	<p>도입&gt;          한쪽 부분만을 표현하는 부조로 만드는 작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만지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조각 낼 수 있는 매체로서의 찰흙의 성질과 가루상태에서 물을 섞었을 때 굳어지며 단단해지는 석고의 성질에 대해 알려준다.</p> <p>활동&gt;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찰흙에 담아 주무르고 두드리면서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찰흙을 만지면서 찰흙의 성질과 찰흙을 만질 때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한다.          부조작품을 만들기 위해 반죽한 찰흙에 손바닥이나 주먹을 찍어 틀을 만든다.          손을 찍어 놓은 찰흙 틀에 비누칠을 하고, 가루석고에 물을 부어 개어준 후 찰흙 틀에 고르게 빨리 부어준다.          가루석고를 개어 줄 때는 빨리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고르게 저어서 부어줘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말하며 도와준다.          부어놓은 석고가 조금 굳어지면 손을 얹어 느껴보고 묽은 석고가 굳어져 가면서 열이 발생하고 다시 식어가는 과정에 대해 그 느낌을 서로 이야기한다.          석고가 더 굳어질 동안 모두 교실 뒤로 이동하여 큰 종이에 한 명을 정하여 친구의 신체를 본뜬다.          큰 대야에 밀가루 풀을 부어 색이 있는 물감을 섞으며 다 같이 저어준다.          종이에 그려진 친구의 신체그림을 가득 채워주며 풀을 발라준다.</p> <p>진행방법</p> <p>친구의 신체그림에 풀을 칠하며 신체의 소중함과 내면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나눈 후, 풀을 바른 종지와 풀이 담긴 대야를 정리한다.          석고가 마른 것을 확인하고 색을 칠하면서 자신의 손 모형을 꾸며준다.          손 모형을 꾸며준 후 주변을 정리한다.</p> <p>정리&gt;          우리의 신체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활동 후 느낀 점과 개선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차시예고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p>

### ③ 결과분석

손 본뜨기를 위해 찰흙 반죽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불만과 걱정들을 생각하며 찰흙을 두드리고, 주무르고, 조각내고, 던지고, 누르는 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을 통해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퇴행과 자기방어를 풀어줄 수 있는 찰흙이라는 매체를 통해 감정해소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석고가루가 단단한 석고로 변하는 것과 굳어가면서 따뜻한 열을 발생하는 것도 신기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손 모양을 본 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고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분위기였다.

풀 작업을 위해 친구의 신체를 본뜬 때에는 예쁘게 그려야 한다는 친구,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친구, 날씬하게 그려줘야 한다는 친구 등 다양한 반응이었다. 또한 밀가루 풀에 색 물감을 다 같이 섞을 때는 풀 느낌이 싫다며 손대지 않던 아동도 다른 친구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만져보더니 마지막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구의 신체그림에 풀을 가득 채워주는 작업을 통해 나와 다른 친구의 신체의 중요성, 나와 친구의 마음까지도 존중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활동이 생각보다 즐거웠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객관화시켜 보는 계기를 만들어 나와 친구의 신체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묽은 재료인 밀가루 풀을 큰 종이에 채워주는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는 활동을 통한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림 2> 2차시 활동결과

(3) 3차 수업 - 땅속 마을에 사는 나의 모습과 현재 나의 장점과 단점

① 수업의 개요

땅속 마을에 사는 나의 모습은 상상을 하며 그림으로써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다. 나의 세계를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구성함으로써 나라는 주체를 인식하게 되고 자발적인 표현을 통해 무의식을 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현재의 생각과 욕구, 감정 등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또한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기를 통해 나에 대한 주체 의식을 더욱 키워주도록 한다. 현재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면을 수용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며 자아의 가치를 존중하여 미래지향적인 성숙된 자아로 성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사는 나의 땅속마을을 상상하여 그리기와 나의 장점 단점 그리기를 함께 실시하였다.

② 지도안

<표 9> 3차시 지도안

활동명	상상화 그리기-나의 장점과 단점
주제	땅속 마을에 사는 나의 모습과 현재 나의 장점과 단점
준비물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수채도구, 종이, 연필
진행방법	<p>도입&gt; 수업을 시작하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말고 땅 속 마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꾸민다면 어떤 세상이 될 지 상상해본다.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p> <p>전개&gt; 땅 속 마을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마음대로 그린다. 수업 중간 중간 아이들에게 그림 속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채색은 다음시간까지 이어져도 좋으니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리도록 하라고 알려준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다른 종이에 손 모양을 따라 그리고 그림의 손가락마다 왼손 그림에는 나의 장점을, 오른손 그림에는 나의 단점을 써본다.</p> <p>정리&gt;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작품을 보며 이야기한다. 그 세계를 인정해주고 마음속에서 원하는 내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차시를 예고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p>

### ③ 결과분석

활동사진 속 참고작품의 아동은 땅속마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주제를 이야기 할 때 땅속 마을 역시 현재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원까지 존재한다고 하였다. 현실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했다고 한다. 상상을 통한 내가 원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지만 현재 생활에 대한 감정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학업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였다. 아이들의 작품은 앞에 언급한 친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더욱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였다.

손가락 그림에 나의 단점과 장점을 적는 활동 시에는 장점은 열심히 적는 반면 단점을 적을 때는 망설이며 적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단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고치려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피드백을 하였다. 이에 아이들은 단점을 이야기 하며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받을 때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림 3> 3차시 활동결과

### (4) 4차 수업 - 만다라 그리기

#### ① 수업의 개요

만다라 활동은 산만하고 흥분된 상태를 고요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하여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활동시 조용한 음악을 틀어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 만다라 그리기는 원안의 규칙적인 그림을 배열하여 그리거나 자유로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동시에 이완을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동은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충동성이 감소될 수 있으며 표현능력의 신장과 정서 순화, 감정의 발산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명상을 통해 차분해진 감정으로 만다라 그리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 ② 지도안

<표 10> 4차시 지도안

활동명	접시꾸미기
주제	만다라 그리기
준비물	플라스틱 접시, 유성매직
진행방법	<p>도입&gt; 수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재료를 바닥에 놓고 편안하게 앉도록 한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한다. 현재의 기분상태와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자신의 마음상태를 생각하고 색으로 표현하면 어떤가 생각해본다.</p> <p>진개&gt; 명상을 위한 음악을 수업이 끝날 때까지 틀어놓는다. 친구와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것을 유의시킨다. 동그란 플라스틱 접시에 만다라를 표현할 것임을 알려준다. 색갈로 원형을 채워주고, 원의 중심 혹은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한다. 현재에 기분과 감정에 맞는 색을 골라 유성매직으로 플라스틱 접시에 표현을 한다. 원하는 색으로 원하는 문양이나 그림을 그리고 색칠한다.</p> <p>결과&gt; 만다라 작품을 보며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본다. 다음차시를 예고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p>

### ③ 결과분석

조용한 음악과 함께 명상을 하며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다른 미술 수업 때보다 편안하고 집중력 높은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 아이들은 주제가 정해진 것도 아닌 추상적인 내면을 표현하는 작업을 어떤 수업보다

집중하여 작업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수업 때마다 산만한 학생이 만다라 만들기를 하는 동안 가장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아래 활동사진의 아동이 참고작품에 담은 마음 속 감정은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서 분홍과 노랑을 사용하였고 꽃이 생각나서 꽃 그림처럼 그렸다는 소감을 말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다라 그리기를 완성하고 난 후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고 완성 후에는 자기 작품에 대해 만족하고 마음이 편안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림 4> 4차시 활동결과

(5) 5차 수업 - 가족을 생각하며 어항 속 물고기 그리기 후 나에게 상장주기

① 수업의 개요

가족을 생각하며 어항 속 물고기 그리기는 가족 안에서의 나를 생각해보며 가족과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가지며 나의 존재감과 가족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는 물론 또래 관계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으로 드러난 도식화를 통해 심리적 압박이나 갈등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학기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나를 칭찬하는 상장을 직접 만들고 교사와 함께 수여식을 해 봄으로써 자신감 향상과 스스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존감 향상과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나와 가족을 물고기라고 생각하며 같이 그려주는 어항 속 물고기 그리기와 나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및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 ② 지도안

<표 11> 5차시 지도안

활동명	어항속 물고기 그리기와 나에게 상장주기
주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어항 속 물고기 그리기와 나를 칭찬하기
준비물	우드락, 종이, 크레파스
진행방법	<p>도입&gt; 종이 안의 공간이 어항 속이라 생각하고, 우리가족이 어항 속 물고기라고 상상하며 어떻게 놀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또한 한 학기동안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p> <p>전개&gt; 가족을 생각하며 물고기를 그리고 물고기 외에 다른 것을 그려도 좋다고 알려준다. 나와 가족을 물고기라고 생각하며 어항 속을 꾸며준다. 어항 속 물고기를 완성하고 나면, 준비한 색지에 한 학기동안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꼭 한가지 씩 적어 상장을 만든다. 상장의 제목은 ‘나에게 주는 상장’이며, 내용은 ‘나 ○○○는 2 학기 동안 ~한 일을 잘 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함.’ 이라고 적는다. 일시를 적고 상장 만들기를 완성한다. 상장을 다 만든 학생에게 상장수여식을 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며 모두 박수를 쳐 주도록 한다.</p> <p>정리&gt; 어항 속 물고기 그리기 작품을 보며 나의 어항 속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나의 가족의 모습은 어떤가, 가족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 그리고 상장수여식을 한 후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칭찬하기를 통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를 칭찬해주며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한다.</p>

### ③ 결과분석

아이들은 나와 가족의 모습을 물고기라고 생각하며 감정이입을 하는 듯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가족 안에서 나는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아동이 생각할 때 가족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인물대로 크기를 그려주었다. 엄마가 없는 친구의 경우는 엄마 물고기가 아닌 양육에 가장 영향을 주는 할머니를 가장 크게 그리며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봐 주심으로 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면 할머니의 무서운 부분도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족과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가족들과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나에게 주는 상장 수여식을 통해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아이들은 쑥스러워 하면서도 기분이 왠지 우쭐해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부끄럽다고 도망치던 아이도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밝은 웃음을 지었다. 이에 작은 일에도 항상 자신을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격려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였다.



<그림 5> 5차시 활동결과

### 3. 설문결과

전체 수업 후 25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까지의 미술수업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고, 설문 결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설문 1. 미술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표 12> 설문 1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미술시간에 새로운 것을 그리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미술 시간이 기다려진다.	17	68 %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8	32 %
그저 그렇다.	0	0.0 %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별로다.	0	0.0 %

이 문항은 기존의 미술수업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 ‘미술시간이 굉장히 흥미롭고 기다려진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32%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것으로 본 수업을 위해 구성된 그룹이 평상시 미술시간을 좋아하는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2.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나요?

<표 13> 설문 2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그림의 주제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그린다.	11	44 %
주제에 관한 느낌에 대해 생각하고 그린다.	8	32 %
주제를 듣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린다.	5	20 %
옆 친구를 따라 그린다.	1	4 %

이 문항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 결과는 ‘그림의 주제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그린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주제에 관한 느낌에 대해 생각하고 그린다’ 라고 답한

학생들이 32%, ‘주제를 듣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린다’ 라고 답한 학생들이 20%, ‘옆 친구를 따라 그린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으로 아동들이 미술시간에 주제를 주면 대체적으로 방법적인 부분을 더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3. 그림을 그릴 때 어려움이 있나요?

<표 14> 설문 3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무엇을 그려야 할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6	24 %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할 지 모르겠다.	6	24 %
색칠하는 것이 어렵다.	7	28 %
어렵지 않다.	4	16 %

이 문항은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색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무엇을 그려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는 응답과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4%, ‘어렵지 않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16%로 가장 낮았다. 이것으로 대부분 미술의 기법에 따른 표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설문 4.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생님과 주제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나요?

<표 15> 설문 4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충분히 이야기한다.	10	40 %
적당히 이야기한다.	6	24 %
조금 이야기한다.	5	20 %
이야기 하지 않는다.	1	4 %

이 문항은 선생님과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생님과 그 날의 주제에 대해 느낌을 이야기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충분히 이야기한다’ 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적당히 이야기한다’ 라는 응답이 24%, ‘조금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20%, ‘이야기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로 가장 낮았다.

이것으로 대부분 미술의 기법에 따른 표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설문 5. 평상시와 다른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면 어떤가요?

<표 16> 설문 5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게 흥미롭고, 항상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좋겠다.	18	72 %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재밌지만 가끔 다른 재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3	12 %
그저 그렇다.	1	4 %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도 별 느낌이 없다.	0	0 %

이 문항은 평상시와 다른 새로운 재료의 사용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항상 새로운 재료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응답이 72%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재료는 재밌지만 가끔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응답이 12%, ‘그저 그렇다’ 라는 응답이 4%였다. 이는 신문지 찢기, 풀작업과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수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설문 6. 그림에 붙이기 위해 종이 찢기를 하였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표 17> 설문 6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것이 재미있고 집중이 잘 되었다.	10	40 %
종이를 찢는 게 재미있긴 했지만 붙이는 것이 어려웠다.	10	40 %
그냥 그렇다.	3	12 %
종이를 붙이기 위해 찢는 게 귀찮다.	2	8 %

이 문항은 그림에 붙이기 위해 종이 찢기를 할 때 기분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작업이 재밌고 집중이 잘 됐다’ 라는 응답과 ‘종이 찢기는 재밌었지만 붙이는 것이 어려웠다’ 라는 응답이 각각 40%였다. ‘그냥 그랬다’ 라는 응답은 12%, ‘종이를 붙이기 위해 찢는 것이 귀찮다’ 라는 응답은 8%로 가장 낮았다. 이것으로 종이를 잘게 찢는 과정이 힘들지만 찢고 붙이는 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신문지 찢기를 하였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표 18> 설문 7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신나게 찢고 나니 마음이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16	64 %
마음대로 찢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3	12 %
종이 찢기가 망설여졌지만 찢어보니 기분이 좋았다.	1	4 %
종이를 찢는 게 힘들었다.	2	8 %

이 문항은 신문지 찢기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신나게 찢고 나서 마음이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마음대로 찢을 수 있어 재미있었다’ 라는 응답이 12%, ‘종이를 찢을 때 힘들었다’ 라는 응답이 8%, ‘종이 찢기는 망설여졌지만 신문지를 찢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라는 응답이 4%로 가장 낮았다. 신문지 찢어 날리기를 통해 아이들은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고 해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8. 손을 본뜨기 위해 찰흙을 만질 때 느낌이 어땠나요?

<표 19> 설문 8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찰흙 만지는 느낌이 좋고 주무르면서 집중이 잘 되어 좋았다	15	60 %
찰흙이 내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재미있었다.	8	32 %
찰흙을 만졌을 때 느낌이 차갑고 물렁거려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0	0 %
손에 묻는 것 자체가 싫었다.	1	4 %

이 문항은 찰흙을 만졌을 때의 느낌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찰흙을 만지는 느낌이 좋고 주무르면서 집중이 잘 되었다’ 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찰흙이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재미있었다’ 라는 응답이 32%, ‘손에 묻는 것이 싫다’ 라는 응답이 4%로 가장 낮았다. 이것으로 찰흙작업을 통해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음은 물론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재료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9. 가루 석고가 점점 굳어가는 것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땠나요?

<표 20> 설문 9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석고라는 재료가 가루에서 점점 굳어가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17	68 %
석고가 따뜻해지면서 굳어가는 게 신기하였다.	6	24 %
별 느낌이 없었다.	1	4 %
석고가 굳은 후의 느낌이 딱딱해서 느낌이 좋지 않았다.	1	4 %

이 문항은 석고가 가루에서 굳어가는 것을 만질 때의 느낌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 결과는 ‘석고가 가루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고, ‘굳어가면서 열을 발생하는 것이 신기했다’ 라는 응답이 24%, ‘별 느낌이 없었다’ 라는 응답과 ‘딱딱해서 느낌이 좋지 않았다’ 라는 응답이 각각 4%였다. 이것으로 학생들이 재료의 성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10. 찰흙과 석고로 나의 손 본뜨기를 한 후 느낌이 어떤가요?

<표 21> 설문 10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나의 손을 본떠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14	56 %
나의 손을 본떠서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7	28 %
‘나의 손이 이렇게 생겼네’ 하고 나의 손을 다시 보게 되었다.	0	0 %
별 느낌이 없었다.	2	8 %

이 문항은 찰흙과 석고로 손 본뜨기를 한 후의 느낌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나의 손을 본 떠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낀다’ 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나의 손을 본떠서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라는 응답이 28%, ‘별 느낌이 없었다’ 라는 응답이 8%로 가장 낮았다. 이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11. 친구의 몸을 종이에 본뜨고 그 종이에 풀을 바르고 채울 때 어땠나요?

<표 22> 설문 11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친구의 몸을 예쁘게 그려 주려고 했고, 풀을 맘껏 주무르고 종이에 바르면서 흥미로운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3	52 %
친구를 그려줄 땐 그냥 그렸지만, 풀을 만지고 종이에 바를 때는 재미있었다.	8	32 %
친구를 그리는 건 괜찮았지만, 풀을 만지는 것은 좋지 않았다.	2	8 %
둘 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	2	8 %

이 문항은 친구의 몸을 본뜨고 풀 작업을 하며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친구를 그려주는 것도 풀 작업도 흥미있었다’ 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고 ‘친구를 그리는 것보다 풀을 만지는 것은 좋았다’ 라는 32%, ‘풀을 만지는 것보다 친구를 그리는 것은 좋았다’ 라는 응답과 둘 다 좋지 않았다’ 라는 응답이 각각 8%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기법위주의 표현을 위한 미술활동 외의 작업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12. 손가락 그림에 나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니 어땠나요?

<표 23> 설문 12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나의 장점을 기입한 후 자신감이 생겼고, 나의 단점을 기입한 후 나의 단점을 깨닫고 고쳐야겠다고 느꼈다.	9	36 %
나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	9	36 %
나의 장점을 적을 때는 좋았지만, 나의 단점을 적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7	28 %
장점, 단점을 둘 다 적는 게 부담스럽다.	0	0 %

이 문항은 자신의 장단점을 적는 활동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나의 장점을 기입한 후 자신감이 생기고, 단점을 깨닫고 고쳐야겠다’ 라는 응답과 ‘장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단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 라는 응답이 각각 36%로 가장 많았고 ‘장점을 적는 것은 좋았지만 단점을 적는 것

은 내키지 않았다’ 라는 응답이 28%였다. 이에 아동들은 대부분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며, 단점에 대한 것도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동들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설문 13. 접시 꾸미기를 할 때 어땠나요?

<표 24> 설문 13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똑같은 문양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고, 집중이 잘 되었다.	8	32 %
음악을 들으며 접시꾸미기를 할 때 편안한 기분이었다.	16	64 %
똑같은 문양을 그리는 것이 지루했다.	1	4 %
접시 꾸미기가 어렵기만 했다.	0	0 %

이 문항은 접시 꾸미기를 통한 만다라 그리기를 할 때의 느낌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음악을 들으며 접시꾸미기를 할 때 편안한 느낌이었다’ 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똑같은 문양을 반복하여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고 집중이 잘 되었다’ 라는 응답이 32%, ‘똑같은 문양을 그리는 것이 지루했다’ 라는 응답이 4%였다. 이에 명상과 만다라 그리기를 통한 심신의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집중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설문 14. 가족을 생각하며 어항 속 물고기를 그릴 때 어땠나요?

<표 25> 설문 14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가족을 생각할 때 각자 어울리는 색의 물고기로 골라 그렸다.	4	16 %
가족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	17	68 %
우리 가족 물고기를 그냥 예쁘게만 그려주고 싶었다.	4	16 %
우리 가족 물고기 그리기에 흥미가 없다.	0	0 %

이 문항은 가족을 생각하며 어항 속 물고기 그리기의 느낌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

결과는 ‘가족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하여 그렸다’ 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고 ‘가족에 따라 어울리는 색의 물고기로 그렸다’ 라는 응답과 ‘그냥 예쁘게만 그리고 싶었다’ 라는 응답이 각각 16%였다. 이에 가족과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때 가족과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그 관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설문 15. 나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수업은 어땠나요?

<표 26> 설문 15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나에게 주는 상장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웠다.	13	52 %
칭찬받고 싶던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즐거웠다.	2	8 %
칭찬 받고 싶었던 부분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완성한 후 좋았다.	10	40 %
나에게 주는 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0	0 %

이 문항은 나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수업에 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상장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웠다’ 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고 ‘칭찬받고 싶던 부분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완성 후 좋았다’ 라는 응답이 40%였다. 그리고 ‘칭찬 받고 싶던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즐거웠다’ 라는 응답이 8%로 가장 낮았다. 이에 아이들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16. 지난 미술시간 동안의 나의 작품에 만족하나요?

<표 27> 설문 16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매우 만족한다.	17	68 %
만족한다.	6	24 %
그저 그렇다.	1	4 %
만족하지 않는다.	1	4 %

이 문항은 미술시간에 완성한 자기 작품의 만족에 관한 질문이다. 응답결과는 ‘매우 만족한다’ 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 라는 응답이 24%, ‘그저 그렇다’ 라는 응답과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응답이 각각 4%로 가장 낮았다. 이것으로 학생들의 미술 작품 활동을 통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이 만든 작품에 만족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설문 17. 지금까지의 미술수업과 비교해서 어떠했나요?

<표 28> 설문 17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미술시간을 통해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16	64 %
그림그리기 외에 특별한 활동들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7	28 %
새로운 수업이 재미있었지만 원래 수업이 더 좋았다.	2	8 %
새로운 수업이 재미없었다.	0	0 %

이 문항은 기존의 미술수업과 다른 방식의 미술수업에 대한 차이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는 시간이 좋았다’ 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평면적 표현인 그림그리기 외에 신문지 찢기, 풀 작업과 같은 ‘특별한 활동이 즐거웠다’ 라는 응답이 28%, ‘새로운 방식의 수업도 좋지만 기존의 미술수업이 더 좋다’ 라는 응답이 8%로 가장 낮았다. 이것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설문 18. 지난 미술 수업을 통해 선생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표 29> 설문 18

응답유형	학생	
	25명	100 %
매우 가까워졌다.	17	68 %
조금 가까워졌다.	8	32 %
모르겠다.	0	0 %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다.	0	0 %

이 문항은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통해 선생님과 더 가까워졌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매우 가까워졌다’ 라는 응답은 68%였으며 ‘조금 가까워졌다’ 라는 응답은 32%였다. 이것으로 아동들 대부분이 선생님과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위 설문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미술수업을 통해 아동들이 기법 위주의 표현 활동보다 재료의 성질을 탐구하고 새로운 재료와 수업방법으로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질 수 있었다. 이는 재료에 대한 탐구와 수업의 방법적인 면에 있어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종이 찢어 붙이기와 만다라, 찰흙 작업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특히 만다라를 통한 심신의 편안함과 안정됨을 확인하였다. 신문지 찢어 날리기를 통해 감정의 발산과 해소를 경험하고 물고기 그리기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소중히 대하는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자기 칭찬하기를 통해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던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칭찬을 통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대하는 작업에 관심과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상시 미술시간을 좋아하는 아동들로 구성된다는 방과후학교 미술수업의 한계를 알 수 있었고 더욱 체계화된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보다 많은 다수의 아동이 이러한 미술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규 미술과목에도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아동의 전인적인 인격 형성은 심신의 안정과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인정받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미술수업은 아동 스스로 가치를 상승시키고 부정적 감정의 표출과 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4.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의 기대효과

미술치료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의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미술치료를 미술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활동을 하는, 미술치료의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내면의 부정적 감정의 표출과 해소를 통한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진다.

미술작품을 제작하면서 기분을 환기시키고 이완시킴으로서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완화시켜서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준다. 이것은 미술활동 자체가 가지는 치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치료 활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 감정을 미술로 표현하면서 감정의 해소를 경험하게 되고,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한다.

미술의 치유적 능력에 미술치료의 기법을 활용하여 장점을 더한다면, 아동은 미술수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대하고 바라볼 기회를 얻고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여 해소함으로써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하고 인정하여 자존감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아동의 미술활동을 통한 작품의 완성은 뿌듯함과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승시킨다.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내면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적, 기술적, 상상적, 정서적으로 대단히 노력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창작 작품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미술활동을 통한 창작품들은 전문적인 미술작품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해 아동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 완성된 작품은 자신감 뿐 아니라 그러한 완성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아를 인정해주고 나아가 아동의 자아는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셋째, 미술치료의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될 가능성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미술치료의 예방적 차원에서는 아동에게 차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소극적 원인들을 감소하게 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즘 학생들의 성적과 입시, 진로결정, 게임중독,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요인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부적응,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증, 학교 내에서의 문제행동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모두 문제아동들로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에서 우러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미술치료의 기법을 도입하여 미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은 이제까지와 다른 자율적 표현 출구를 경험하고 불안한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예방을 통한 부정적 감정의 해소와 정화는 아동들의 불안, 억압, 무기력증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성을 성숙시키고 발전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내면을 바라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미술수업의 진행을 통해 기법위주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에 정서적 안정까지 유도하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IV. 결론

지금의 교육은 아동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중심의 실기수업과 입시에 치중한 미술교육은 점점 미술을 주변교과로 밀어내고, 주입적인 인지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 함양에 소홀해지면서 아동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문제 행동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심리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인 미술치료 영역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미술치료는 충분한 임상경험이 있는 교사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모든 교사가 자격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미술치료의 교육적 활용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을 위한 치료의 목적이 아닌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적인 원인들을 없앨 수 있도록 일반 아동들을 위한 문제 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미술치료의 기법만을 활용하기로 한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동미술교육의 실정을 반영해 정규미술수업보다 제약이 적고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과후학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미술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미술수업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아동미술교육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 등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의 특징 및 미술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미술치료기법을 적용한 미술수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수업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고, 내면에 쌓여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활동으로서 수업 분위기가 활기를 띠는 효과를 보였다.

둘째, 장애아동과 위축되어 있었던 아동 역시 기능 위주가 아닌 자율적이면서 감정을 순화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미술활동을 통해 말수가 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산만하고 불안정한 아이들의 행동이 본 미술활동 시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업 직후에도 차분해진 행동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방과 후 미술수업을 통해 예방적 미술치료의 입장에서 아동이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고 밖으로 표현하여 불안정한 감정을 정화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더불어 미적 안목과 조형능력 및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미술교육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더한 미술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방과후 학교 미술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들도 본 연구와 같은 미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현 미술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동미술교육은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단 행 본>

고현 · 유시덕 외 5명(2008), 「매체를 활용한 유·아동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창지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서'06(情緒)

권상구(1993),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김선현(2006), 「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넥서스BOOKS

김선현(2006), 「임상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김선현 · 장혜순(2008), 「유 · 아동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예경

김선현 · 전세일(2009), 「동서의학과의 동서미술치료」, 학지사

김영민(2010), 「제3의 임상미술치료개론」, 이담북스

김춘일(1999), 「창의성 교육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박현주(2009), 「미술치료 진단기법의 이해」, 양서원

백중열 · 오현숙(2010), 「교사를 위한 아동미술교육의 이해」, 공동체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2011),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양경희(2001), 「21세기를 위한 열린 아동미술교육」, 학지사

옥금자(2005), 「청소년 임상미술치료 방법론」, 하나의학사

유미(2010), 「정신분열증 환자의 미술치료와 삶의 질」, 이담북스

유미(2010), 「현장적용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 이담북스

윤혜선(2010), 「해피아트테라피」, 이담북스

이경화(2002), 「방과후 아동지도사 실무」, 학문사

이규선 외 5인(2001),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이근매(2008),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양서원

이시형(2005), 「우뇌가 희망이다」, 서울:풀잎

이유명호(2007), 「뇌력충전」, 웅진 지식하우스

임선하(1993), 「창의성에의 초대」, 서울:교보문고

정여주(2003), 「미술치료의 이해 : 이론과 실제」, 학지사

천은영 · 김경신(2010), 「그림을 통한 아동미술치료」, 신광문화사  
최외선 외 4명(2006),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최외선 외 3명(2006), 「미술치료기법」, 학지사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이론의 탐색」, 예경  
한국미술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한국미술치료학회(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베티 에드워즈(1986), 강은엽 옮김, 「오른쪽 두뇌로 그림그리기」, 미완  
Susan I. Buchalter(2011), 최은미 옮김, 「미술치료 기법과 적용」, 시그마프레스

<기타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2009), 「200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2009-2011년 6월, 방과 후 학교 현황 분석」  
김동연 · 최외선(1997), 「아동미술치료」, 한국미술치료학회 제 17회 연수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0. 6), 「방과 후 학교 현황조사 결과」

<Abstract>

## A Study on Art Therapy Techniques introduced as an Elementary After-School Art Program

Hye-jung Kim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of Fine Art Education

Adviser Prof. Dong-eon Kang

Art education satisfies the needs of not only creative development, but also physical,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aspects in children. Emphasizing emotional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made efforts to revise art education curriculum in order to foster emotional security, strengthen sensibility, and encourage creativity in children. Pushed aside in favor of major subjects, art education is restricted by time constraints, leaving little time for which to cultivate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Moreover, although the negative effects of technique-oriented classes and admission-based education have been clearly stated, they remain a part of the educational arena. As a result, several problems have appeared. The stress caused by a competitive school environment and emotional instability have perpetuated selfishness and altruism; children also tend to be passive and easily intimidated. Resolution of such problems and emotional insecurity will require different solutions than those of the past.

Acceptance of art therapy into the classroom is expected to help develop a positive self-image in children. In order to approach problematic behaviors in children as a preventive dimension, this study applied art therapy techniques in

art classes. Reducing the pressure of time constraints and evaluation that comes with regular art classes, the autonomy offered by an after-school program is thought to better allow such techniques to be introduced and thereby evaluated.

In an attempt to assess emotional stability oriented education in children, the following aspects of art therapy techniques were investigated via documentary research: the concept, necessity and purpose of art for children; the concept and benefits of art therapy;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rt therapy and art education; and the feasibility of applying art therapy techniques to the classroom.

Art activities utilizing art therapy techniques help one to: first, recognize one's emotional state and find a creative outlet for which to express and eliminate inner negative feelings, purifying one's emotions; second, acknowledge one's value, gain confidence, and cherish themselves; and third, reduce the possible causes of problematic behaviors as a preventive dimension.

In this study, a lesson plan utilizing art therapy techniques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an after-school program comprising a total of 23 students: 8 students from grades 1, 2, and 3 and 15 students from grades 4, 5, and 6. This approach created an energetic class atmosphere, which triggered greater interest in the class, allowing students to express piled up emotions, putting them at ease. Secondly, disabled and passive students found a sense of self-worth and confidence, demonstrated through more outgoing and active involvement. Third, students who were easily distracted or insecure showed more focus and restraint after the class. Finally, emotional aspects in education were gratified through this process.

Through this study, a lesson plan for an after-school art program utilizing art therapy techniques was developed, proposing a new teaching-learning method for which to apply to the current art education curriculum.

Art therapy's preventive approach reduces the possible causes of problematic behaviors in children, gives self-worth, and strengthens the inner self for a

more vibrant and a better life at school.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significance of incorporating art therapy in art classes.

## 설문지

학년    남/여

이 설문지는 지금까지의 미술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술활동이 더욱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래의 물음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해당되는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1. 미술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미술시간에 새로운 것을 그리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미술 시간이 기다려진다.
- ②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별로다.

2.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나요?

- ① 그림의 주제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그린다.
- ② 주제에 관한 느낌에 대해 생각하고 그린다.
- ③ 주제를 듣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린다.
- ④ 옆 친구를 따라 그린다.

3. 그림을 그릴 때 어려움이 있나요?

- ① 무엇을 그려야 할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 ②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할 지 모르겠다.
- ③ 색칠하는 것이 어렵다.
- ④ 어렵지 않다.

4.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생님과 주제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나요?

- ① 충분히 이야기한다.
- ② 적당히 이야기한다.
- ③ 조금 이야기한다.
- ④ 이야기 하지 않는다.

5. 평상시와 다른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면 어떤가요?

- 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게 흥미롭고,  
항상 다른 재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 ②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재밌지만 가끔 다른 재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도 별 느낌이 없다.

6. 그림에 붙이기 위해 종이 찢기를 하였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① 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것이 재미있고 집중이 잘 되었다.
- ② 종이를 찢는 게 재미있긴 했지만 붙이는 것이 어려웠다.
- ③ 그냥 그렇다.
- ④ 종이를 붙이기 위해 찢는 게 귀찮다.

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신문지 찢기를 하였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① 신나게 찢고 나니 마음이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 ② 마음대로 찢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 ③ 종이 찢기가 망설여졌지만 찢어보니 기분이 좋았다.
- ④ 종이를 찢는 게 힘들었다.

8. 손을 본뜨기 위해 찰흙을 만질 때 느낌이 어땠나요?

- ① 찰흙 만지는 느낌이 좋고 주무르면서 집중이 잘 되어 좋았다.
- ② 찰흙이 내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재미있었다.
- ③ 찰흙을 만졌을 때 느낌이 차갑고 물렁거려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 ④ 손에 묻는 것 자체가 싫었다.

9. 가루 석고가 점점 굳어가는 것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땠나요?

- ① 석고라는 재료가 가루에서 점점 굳어가는 게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 ② 석고가 따뜻해지면서 굳어가는 게 신기하였다.
- ③ 별 느낌이 없었다.
- ④ 석고가 굳은 후의 느낌이 딱딱해서 느낌이 좋지 않았다.

10. 찰흙과 석고로 나의 손 본뜨기를 한 후 느낌이 어떤가요?

- ① 나의 손을 본떠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 ② 나의 손을 본떠서 그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③ '나의 손이 이렇게 생겼네' 하고 나의 손을 다시 보게 되었다.
- ④ 별 느낌이 없었다.

11. 친구의 몸을 종이에 본뜨고 그 종이에 풀을 바르고 채울 때 어땠나요?

- ① 친구의 몸을 예쁘게 그려 주려고 했고,  
풀을 맘껏 주무르고 종이에 바르면서 흥미로운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② 친구를 그려줄 땐 그냥 그렸지만,  
풀을 만지고 종이에 바를 때는 재미있었다.
- ③ 친구를 그리는 건 괜찮았지만, 풀을 만지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 ④ 둘 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

12. 손가락 그림에 나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니 어땠나요?

- ① 나의 장점을 기입한 후 자신감이 생겼고,  
나의 단점을 기입한 후 나의 단점을 깨닫고 고쳐야겠다고 느꼈다.
- ② 나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
- ③ 나의 장점을 적을 때는 좋았지만,  
나의 단점을 적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 ④ 장점, 단점을 둘 다 적는 게 부담스럽다.

13. 접시 꾸미기를 할 때 어땠나요?

- ① 똑같은 문양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고, 집중이 잘 되었다.
- ② 음악을 들으며 접시꾸미기를 할 때 편안한 기분이었다.
- ③ 똑같은 문양을 그리는 것이 지루했다.
- ④ 접시 꾸미기가 어렵기만 했다.

14. 가족을 생각하며 어항 속 물고기를 그릴 때 어땠나요?

- ① 가족을 생각할 때 각자 어울리는 색의 물고기로 골라 그렸다.
- ② 가족을 생각하면서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
- ③ 우리 가족 물고기를 그냥 예쁘게만 그려주고 싶었다.
- ④ 우리 가족 물고기 그리는 것이 별로였다.

15. 나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수업은 어땠나요?

- ① 나에게 주는 상장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 ② 칭찬받고 싶던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즐거웠다.
- ③ 칭찬 받고 싶었던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완성한 후 좋았다.
- ④ 나에게 주는 상장이 별로였다.

16. 지난 미술시간 동안의 나의 작품에 만족하나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17. 지금까지의 미술수업과 비교해서 어떠했나요?

- ① 미술시간을 통해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 ② 그림그리기 외에 특별한 활동들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 ③ 새로운 수업이 가끔은 재미있었지만 원래 수업이 더 좋았다.
- ④ 새로운 수업이 재미없었다.

18. 지난 미술 수업을 통해 선생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 ① 매우 가까워진 느낌이다.
- ② 조금 가까워진 거 같다.
- ③ 모르겠다.
- ④ 전혀 가까워진 거 같지 않다.